

목포권

“무안 세 발낙지값 내렸어요”

‘금값’ 소문에 장사 안돼 20마리 4만원까지 하락

“최근 어획량이 늘면서 무안낙지 가격이 크게 내렸어요” 본격적인 갯벌낙지 철을 맞아 낙지로 유명한 무안 낙지골목에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최근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도 워낙 ‘금값’이라고 소문나는 바람에 장사가 되지 않기에 무안낙지골목에서 무안낙지를 취급하는 이모(48)씨는 “최근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낙지 채집량이 늘어 세발낙지 1집(20마리)에 5만~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최저 4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1집에 15만원 이상이라고 알려지면서 낙지골목을 찾는 손님이 뜸한 실정이다. 이씨 등 일부 상인들은 군청에 전화를 걸어 무안군의 최대 특산물인 무안갯벌낙지가 적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영암 호텔현대 관광활성화 기여

지난 8월 16일 호남권 최초의 특급호텔로 영암군 삼호읍에 개관한 호텔현대가 서남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 161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현대에는 개관 한달만에 평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호텔현대에서는 개관 후 지난 한 달 동안 한일해협연안 시도 현지사교유회, 천일염과 건강 국제 심포지움 등 그동안 서남권에서 주

개관 한달...객실 가동율 50~90% 각종 세미나·국제회의도 잇따라



50%, 주말 90% 이상의 객실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말에 바다와 다도해 조망이 가능한 SEA SIDE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주일전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또한, 인근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열리면서 관광객이 늘어 호텔현대의 숙박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 내 기관 및 자단체, 사회단체들도 호텔현대의 개관에 따라 다양한 국제회의나 세미나 등

최가 불가능하던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호텔현대를 이용한 고객 대부분은 호텔에서 바라본 다도해의 전망이 국내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22~24일 3일간 무안분청문화제

도공 진흔제·물레체험 등 행사

‘2006 무안분청문화제’가 오는 22일부터 3일간 무안을 순돌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무안분청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숙정)주최로 열린다. 무안분청은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성행했던 가장 한국적인 도자기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청 도예작가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축제를

열고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입진왜란 당시 끌려간 도공들과 이름 없이 살다간 도공들의 넋을 달래는 ‘무명도공 진흔제’를 비롯 무안분청 경매대회, 귀얄문, 인화문, 철화문, 담방 등 다양한 분청기법의 재현행사 등이 열린다. 또한 관광객 체험행사로 분청자기 물레체험, 분청탁본, 자두문양 그리기를 비롯해 무안분청 성현 및 문양장식 경연대회, 전통차 시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분진 차단벽 높아 일조권 침해”

목포 용당동 삼성홈플러스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 반발

삼성홈플러스측이 목포시 용당동 신축예정부지에 분진 및 방음벽 시설을 6m 높이로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통풍이 안 되거나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목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같은 해 9월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2월13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정절차는 정상적으로 끝낸만큼 전문공사 등이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하루빨리 속행하고 최신 공법과 기술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홈플러스는 용당동 1087-1번지의 4필지 1천600여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대형할인마트를 개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 및 시민

사회단체들이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며 입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작의혹이 있다”며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책위가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며 지난 5월12일 목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목포지원에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삼성홈플러스 측이 목포시 용당동 신축예정부지에 6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목포대교 건설사업 탄력

내년도 사업비 181억원 증액 350억원 확정

내년도 목포대교 건설 사업비가 350억 원으로 증액돼 목포대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내년도 목포대교 건설

사업비를 당초 169억원보다 181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으로 확정했다는 것. 특히 전체적인 내년도 SOC예산이 금년에 비해 10% 감소된 상황에서 사업비

가 증액돼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중득 목포시장은 “목포 시민의 숙원인 목포대교가 목표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10월 중 3~4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 지역속원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애프터 런치 콘서트

목포시교향악단이 시민들에게 정서함양과 품격있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시청 1층 헌관 로비에서 ‘애프터 런치 콘서트’(After Lunch Concert)를 개최했다. 목포시교향악단은 오는 10월 하순 모차르트 탄신 250주년기념 제73회 정기연주회때 러시아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 협연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지역 단신/

국화 바이로이드 무병모 증식 보급



무안군(군수 서삼석)이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국화 바이로이드 무병 모 증식 배양묘를 분양받아 2007년까지 국화재배농가에 보급한다. ‘사친’ 무안군이 이번에 원예연구소에서 분양받은 국화조직 배양묘는 꽃의 색깔이 선명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20%이상 증수효과가 기대돼 고품질 국화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무안군에는 25농가가 연간 500여만본의 국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증식으로 연 100만본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시 ‘어린이 내고장 탐방 투어’

목포시는 18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내고장 탐방 1일투어’를 실시한다. 목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투어는 목포시내 29개 초등학교에서 참가신청을 한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내고장 탐방투어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건물을 비롯해 장유인 옥공예 전수교육관, 박화성문화기념관, 목포신항, 옥암택지개발 현장 및 전남도청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수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재래시장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개설한 목포종합수산물상인대학 졸업식이 16일 갤러리아레나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일 3시간씩 일주일에 걸쳐 기본과정을 수료한 35명 중에서, 점포관리와 상품진열 등 심화과정을 이수한 30명이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다. 한편 상인대학 명예학장상(목포시장)에는 영덕사회정경남, 박귀례부부와 삼육수산 김점석, 장정임부부 시장경영지원센터 이사장상에는 영수수산 박영수씨(상인회장), 그리고 교육기관인 에듀넷 컨설턴트(주) 원장상은 창영상회 문내순씨가 수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Lists various statistics and numbers.

대인동산부동산
(주)228-1140, 210-1140-252
(주)228-1140, 210-1140-252
(주)228-1140, 210-1140-252

유성공인중개사
352-4545, 364-4545
(주) 유성공인중개사
(주) 유성공인중개사

인애공인중개사
111-642-0391
(주) 인애공인중개사
(주) 인애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건설(주)
투자상담 681-0453, 010-4628-5454
(주) 동부부동산건설
(주) 동부부동산건설

하이링크 건설링
(주)383-5221, 011-609-5221
(주) 하이링크 건설링
(주) 하이링크 건설링

전원공인중개사
0622-266-0004, 010-4628-0989
(주) 전원공인중개사
(주) 전원공인중개사